

금융시장 안정 '기대' ... 통상 마찰 '우려'

美 첫 흑인 대통령 탄생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위기 타개 탄력

8년만에 민주당 정권이 재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력의 무게추는 힘빠진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 당선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금융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만큼 경제위기의 수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벼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대권을 거머쥐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론이 힘을 받는 것은 물론 과거 만큼은 아니겠지만 보호주의 무역 성향이 제한적으로 나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리더십 등장 ...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위기를 만든 정권이 수습까지 도맡아 하면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용경색이 완화되면 이런 문제들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오바마 당선자가 시장 안정 및 개선에 강

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추가 구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으며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 효과는 금융시장에 미리 반영 됐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 강달러 고수·긴축재정 변수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오바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방향은 부시 행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중

수출기업 유리 ... 긴축땐 실물 경제 악재

국에 이어 두 번째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 자리는 부정적 요인이다.

미 경제의 성장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보호무역 강화·FTA 재협상 압박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다.

이런 성향은 과거 클린턴 정부가 직전 공화당 정부에서 폐기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고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징수액을 미국내 제소당사자에게 나눠주는 내용의 버드 수정법이 민주당 측에서 입안된 점만 봐도 알수 있다.

더욱이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 당선자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에

자동차 한·미 통상 협안 재등장 가능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은 특정 시기에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한미 통상현안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에 시사해준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보호무역 경향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보호무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TA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온 오바마의 당선에 한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좀 더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게 됐다.

한편 대북 정책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한반도 정세 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오바마 효과'

어제 28p 급등 ... 환율도 22원 급락



우~와! 치즈 만들기 쉽다

늘어나는 치즈를 만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5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내 자연치즈 소비 확대를 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치즈 페스티벌'이 열려 어린이들이 쭉쭉

/연합뉴스

올 김장비용 35% 가량 줄어든다

4인 기준 10만원 예상

배추와 무·대파 값이 폭락하면서 올해 김장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35%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협전남지역부와 목포농협유통은 올해 4인 가족 기준(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10만1천490원으로, 지난해 16만8천200원에 비해 6만6천71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목포농협유통에서 거래되는 주요 김장재료 가격(5일 현재)을 보면 배추(20포기) 값은 1만4천원에 팔리고 있다. 무

(10kg) 값은 1만원, 대파(1단)와 흙갓(2단)도 각각 1천원, 4천960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된 가격에 거래됐다.

반면 멀치액젓(특품 1kg)과 간생강(100g), 새우젓(특품 1kg)은 각각 2천 260원, 460원, 1만1천690원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건고주(태양초 3kg)와 미나리(2단), 깐마늘(2kg)은 5~10% 올라 3만 7천500원, 4천560원, 9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굽은소금(5kg)은 1천원에 거래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신문	관리, 총무로 경리담당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62-224-5800
㈜그린텔	KTF 총장로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0	042-223-4900
류닝아이	핸드폰케이스 티셔츠 도색팀/인쇄팀	고졸/경력무관	1200 ~ 1400	11/10	062-372-9002
농업회사법인한두레농산(주)	[구매관리/판매관리]팀장급 및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2	062-655-6688
㈜레이크힐스	경리회계담당자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12	010-452-3674
지성디자인	[정규직]편집디자인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000 ~ 2200	11/12	016-609-1234
실롭신업(주)	경리/전산/회계/생산관리 경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652-2701
웰리디라이텍(주)	반도체 조명 분야의 전기/전자 부문 개발 업무	대졸/경력3년	3000 ~ 3200	11/14	062-602-7849
두루솔루션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14	070-772-7171
㈜soc건설	토목, 보강토 설계, 시공 사원	초대졸/경력2년	1800 ~ 2000	11/15	062-384-7001
동화신기(주)	경리회계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000 ~ 2200	11/15	062-717-7214
에네스건설(주)	관공공사 관리(건축, 토목)/조경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 ~ 2000	11/17	062-572-5500
스튜디오 동동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풀라이 즐파일럿' 제작 작품팀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70-7012-771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中企 대출 부진 은행 제재"

금융 당국자, 시중 은행장들 만나 유동성 활성화 강조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5일 시중 은행장들을 비공개로 만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주문하면서 대출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제재하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과 김 원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산업,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장을 만나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페스트트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페스트트랙은 내년 6월까지 은행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 지원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지만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보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금융 거래상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은행들이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

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창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회복이 촉진돼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흑자기업의 도산과 실물부문의 위축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지난 달 상당수 은행이 무역금융, 수출지원금 등을 축소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일선 창구에서의 불건전 영업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가계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금감원, 은행들에 지원 계획 요구

국내 18개 은행은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MOU) 자침을 은행들에 제시하고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자침에 따르면 은행들은 저소득층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등 차부상환 부담의 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환원을 매입 등 수출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행들은 임직원의 연봉과 보수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평가 위주로 개편해야 하며 증자와 적정수준의 배당 등 자본 확충,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과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목적 이외로 벌렸을 때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 대출 등으로 써야 한다.

차입외화에 대해 정부의 대지급 발생 우려가 크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MOU를 위반했을 때는 지급보증한도가 줄어들고 보증수수료율이 인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하는 세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은행별로 MOU를 맺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융소외자 내달부터 지원

정부가 채무 인수 상환금액 재조정

다음 달부터 금융소외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소외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지급되는 채무를 정부가 인수해 상환금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계획보다 3개월 늦어졌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번 신용회복 사업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대쪽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남중수 KT 사장 사임

KT 이사회는 5일 구속된 남중수 사장의 사임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KTF 관련 내용이 보도된 9월 하순 KT그룹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수용을 유보해 왔으나,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임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남 사장이 사임에 따라 KT 이사회는